



일본은행, 추가 양적완화 및 명시적 물가 목표치 제시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은행은 2월 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인화강세 지속과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고 물가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결정함.

- 일본은행은 자산매입 기금 규모를 종전의 55조 엔에서 65조 엔으로 확충하며, 10조 엔에 달하는 동 증액분을 전액 장기국채 매입에 충당하기로 함.
 - 2011년 10월 양적완화 목적으로 자산매입 기금 규모를 50조 엔에서 55조 엔으로 확대한 바 있음.
- 그 결과 장기금리 하락 촉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매입기금은 종전의 9조 엔에서 19조 엔으로 확대되며, 자산매입도 종전 계획대로 2012년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임.

■ 일본은행이 4개월 만에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한 배경으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기록적인 수준의 엔고가 고착되면서 일본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.

- 2011 회계연도 3/4분기(10~12월) 실질 GDP가 2분기만에 감소세로 전락하여 전기대비 0.6%(연율 -2.3%) 감소함.
- 이에 정책금리는 연간 0~0.1%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제로금리를, 고정금리 방식의 저리 대출은 35조 엔 규모를 유지하기 함.

■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그간 추상적 표현에 그쳤던 물가목표를 미 연준처럼 명확하게 목표치로 표현함.

- 일본은행은 “물가안정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가안정과 이에 걸 맞는 물가상승률이라고 지적하고,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당분간 1%를 목표로 한다”고 명확히 밝힘.
 - 그동안 일본은행은 목표 물가상승률을 ‘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의 이해’로 표현하고 ‘2% 이하의 플러스 영역에서 1% 정도가 적절하다’고 하는 등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해 대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음.

(교도통신, 로이타, 요미우리신문, 니혼게이자이신문 2/15, 2/16 등 뉴스종합)